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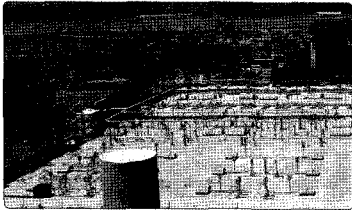
environment NEWS



국내소식

2012년부터

동절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환경부는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12년부터 겨울철에 완화 적용해 오던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지/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한 품질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함.
-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하여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11. 1. 1 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대독성의 검사주기를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 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그 동안은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을 고려하여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및 덮개 설치 등 여건변화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겨울철에도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일 500m³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은 2012. 1. 1일부터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 기준을 폐지하며, 1일 500m³ 미만의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2005. 1. 1부터 적용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몇 곳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행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국립공원 378개 구간 1,355km의 탐방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등 90개 탐방로 467km는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288개 탐방로 888km는 평소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국립공원의 경우 출입 통제 구간에 있는 대피소도 통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은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 금지구역으로 위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통제구역을 출입할 경우에는 50만원,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행위 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 부과된다.

수변구역내 오·폐수 배출업소 점검

환경부는 갈수기를 앞두고 한강(팔당호 유역) 등 4대강수계의 주요 상수원상류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수변구역 내 오·폐수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수변구역이란 4대강수계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의 개발유보지 개념으로, 하천 경계에 인접한 (500m~1km) 1,200km²지역 대상으로 4대강수계법에 따라 지정. 오염원 유입 저감, 수변녹지 확대 등 수질 보전을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함.

경기도 등 9개 광역시·도 주관으로 시·군·구별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점검대상 시설은 개인하수처리 시설 37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66개소, 폐수배출시설 18개소 등 그간 <하수도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업체를 위주로 선정됐다. 이번 수변구역 불법오염행위 특별점검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오염원 증가 및 계절적으로 갈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에 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형사벌 적용대상은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대한 오염행위 상시 단속 등을 통한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유역환경청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제주, 환경관리 최우수 도시로 선정



‘제4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 공모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O)이 주관한 ‘제4회 그린시티 시상식’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외 충북 청주시와 충남 서천군이 국무총리상을 부산광역시 북구·경기 안성시·전북 남원시 등 3개 자치단체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서울 광진구·전북 장수군이 각각 공동 주관기관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지정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의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 지정제도를 기반으로 자치단체의 자발적 환경관리역량 제고와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 2년마다 실시되었고 올해 4회째로 전개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제주 순환 생태탐방로(올레길) 조성 사업’으로 결실을 얻었다. 환경부는 수상 자치단체를 2년간(’10년~’12년) 그린시티로 지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환경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국내외적 홍보를 도우며 해외 우수 환경 자치단체 견학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발표

환경부는 지난 10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했다.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립한 대책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 온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 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가 담겨있다.

이번 대책 수립에 특히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70여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왔다. 이상기후(폭설, 저온현상), 병해충(갈색여치, 꽃매미), 폭염(열대야), 태풍(곤파스) 등에서 경험한 대로 기후변화는 일상의 삶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향후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최소 2℃의 평균기온 추가 상승이 예상(기상청)되므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해야 할 시점이다.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고, 건강, 재난·재해, 물 관리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예측·감시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적응대책의 세부시행

계획을 정부 부처는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특별히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예산을 지원하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술적/과학적 적응방안 수립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쓰레기 매립가스 경제적 효과 상승



쓰레기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한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8개 매립장에 설치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에서 전기 또는 가스 연료를 생산 판매하여 541억원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07년 327억원에서 ’08년 51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환경적, 사회적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매립가스에 포함(약 50%)되어 있는 메탄(CH₄)을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방지, 탄소배출권(CERs) 확보, 매립장 인근 지역 악취 민원 방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를 얻고 있다.

environment NEWS



환경부에서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08. 10)>에 따라 '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25개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09년 3개소)하고 지자체 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타당성조사('09)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국립공원 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탐방객의 공원 탐방을 돕고 효과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현장에서 순찰·단속업무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공단은 특히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명확인과 과거 단속이력 조회, 단속결과 처리 등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2월까지 개발 예정인 탐방안내용 어플리케이션은 우선적으로 북한산 둘레길에 적용하여, 노선안내는 물론 주요 지점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현장에서는 GPS, 디지털 카메라 등의 기기와 기록 용지를 사용하고, 사무소에 복귀해서 이를 전산 처리 해야 하는 등 업무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간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자연 자원 조사과정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희귀식물을 발견하면 사진과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서식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

이다. 안전점검을 위해서도 290여 개 등산로의 시설물 현황과 정비이력을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12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 반달가슴곰의 위치정보와 이동경로가 스마트폰에 표시되어 위치추적 관리가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중 의약품질 위해성 아직은 파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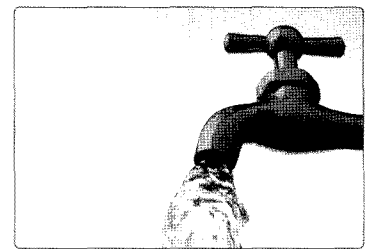
환경부는 의약품질이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추진중인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종합계획('08~'12)」의 일환으로 “환경 중 의약품질 노출 실태 및 배출원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도 조사에서는 X-선 조영제인 이오프로미드 등 일부 의약품질이 환경에서 발견되었으나 약효량 및 생태독성치와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유역의 환경(하천수·퇴적물·토양), 배출원(하수·축산·병원·제약공장폐수처리장) 및 정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의약품질 30종을 조사한 결과, 하천수(40지점), 퇴적물(8지점), 토양(10지점) 등 환경에서는 조사대상 30종 의약품질 중 하천수 18종, 퇴적물 4종, 토양 4종이

검출되었고, 검출농도는 외국과 유사한 수준(ppb)으로 나타났다.

주요 배출원으로 알려진 하수(5개소), 축산폐수(2개소), 병원폐수(25개소) 및 제약공장폐수처리장(10개소)의 조사결과, 방류수에서 검출된 의약품질은 하수 26종, 축산폐수 23종, 병원폐수 28종 및 제약공장폐수 28종으로 나타났다. 현재 검출농도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의약품질의 잠재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06년부터 환경 중 의약품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12년까지 환경 중 의약품질의 현황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특성 및 적정처리기법 조사 등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apwater.or.kr 수도물 안전해요!



환경부, 서울시 등 7개 특·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의 9개 기관이 '수도물 홍보협의회' 홈페이지(www.tapwater.or.kr) 내에 온라인 접속창고 '수도물불신조장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를 통해 수도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정수기 및 먹는 샘물 등의 허위·과장·거짓 광고 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게 되는데, 이로써 수도물

사용자인 국민이 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더욱 보호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정수기 및 먹는샘물 업체 등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해 근거없이 수돗물을 비방하거나, 제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실시해왔다. 이는 공공재인 수돗물의 가치를 악의적으로 저평가시켜 국익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고, 값비싼 제품 구매를 유도하여 경제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부도덕한 상술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보가 접수되면 증거를 수집해 해당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 절차를 거쳐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보자(개인 또는 단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먹는 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행정처분,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수돗물과 관련한 국민 불안 조장 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복숭아 꽃은 햇빛이 필요해요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해 복숭아 과수원에 햇빛을 가려 과수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북 영천시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경작하던 농민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자호천교 교량으로

인해 과수원에 햇빛이 가려져 냉해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2010년 10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3천 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복숭아 재배 농민은 자호천교 교량 상판이 올라간 2003년 8월부터 자호천교 교량 일조방해로 복숭아나무 일부가 죽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과수원에 대한 일조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여름에는 일조방해율이 미미하나, 겨울에는 최고 60%의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도로 교량 설치자는 주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량설치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향후 미국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은 40% 이하일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10월 26일 주요 경제권별 전문가를 초청해 남대문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은 40% 이하일 것으로 보이지만 고실업률, 주택 경기 부진, 불명확한 경기 지표 등 불확실성이 많아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경제 회복과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다. 과수석연구원은 "중국이 G2로 부상하기는 했지만 아직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할 정도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파워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본다"며 "중국이 미국과 G2로서 국제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경제 부문 발표를 맡은 김경업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장은 "유럽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높은 실업률로 회복세 전환이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유로화 강세로 인해 수출도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또한 "재정 문제는 사회보장 지출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해결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긴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nvironment NEWS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상순 보스턴 컨설팅 그룹 파트너는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가 상당 기간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설한 재무 구조와 효율적이면서도 변화에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갖춘 후 R&D와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에 대한 재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제3회 기업사랑 마라톤대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주관한 ‘제3회 기업사랑 마라톤 대회’ (주최: 경제5단체)에 기업인 4천여 명이 모여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의지를 다졌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대회사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강한 의지와 인내심이 요구되는 마라톤 정신으로 힘껏 노력한다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달리는 이번 마라톤 대회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나눔기금 모금 및 전달이 이뤄져 기업과 사회가 화합하고 희망을 나누는 대회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기업이 소외계층을 배려하려는 취지에 공감해 기부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기업과 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가지려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 기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사회에 기업가정신도 더욱 양성해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라톤 대회는 하프, 10km, 5km 등 3개 코스로 진행됐고, 하프 1위는 소해섭(남자), 이선영(여자), 10Km 1위는 홍기표(남자), 오상미(여자)씨가 차지했다.

